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들

예전에 했던일들을되돌아보고, 수없이많았던인연들을떠올리며혼자어떻게세월을붙잡아보려하지만 후드득쏟아지는저어두운창밖의빗소리에또생각의꼬리를놓친다. 그래도 살아온 길을되돌아보는일이즐겁다. 생각속의나는젊고실패를두려워하지않을 뿐만아니라항상 주인공이다. 웃음과여유도 잃지않는다. 과거와 현재가 융화된 내가시간이흐르지 않는또 하나의 세상에서 살고있다.

김동환
전현대건설상무이사
동아컨설턴트부사장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정신없이살았던 지난 30여 년간. 나는무엇을하였고지금어디에와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가? 어느 밤에는, 자다가깨어눈감은채로무심한 30년의세월을이리저리떠올리며나뭇잎처럼생각의바다를떠다녀본다.

젊음과새로운세계에대한호기심, 그리고열정등으로아프리카, 중동, 동남아등지의건설현장에서보낸11년. 말많고탈많은새만금종합간척현장에서주민들의 수많은 시위와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지루한 정치 논쟁 속에서 현장을 지켰던 10여 년.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등 국내의 주요 SOC 시설의 건설 현장에서 보냈던분주한나날들…. 생각해보니그동안정말외롭게아니억척스럽게일을해왔다.

이제겨우2년간서울에서출퇴근하면서아내가차려주는아침밥을먹고호화스럽고행복한생각을하면서보통사람의생활을할수가있게되었다. 그런데벌써퇴직과 노후 문제가 내 앞에 와 버티고 있다. 언젠가는 다가올문제라고생각은하고 있었지만 막상 닥쳐 보니 이를 받아들이기 가쉽지는않다.

그래도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았던 생활이었기에좀더천천히, 좀더여유롭고자유롭게생각하면서 노년의 지혜로 노후의 삶을살고싶다는간절한마음에 제일 우선적으로 퇴직금, 위로금 등을 합쳐 서울에서한시간반거리에있는지역에남은노후를같이할 시골집을 지었다. 그러나, 가족들과형제, 친구 등 모두와 떨어져서 30여 년 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한 대가의 결과를 생각하면 깊은 좌절과 혼돈을 느낄 때도있었다. 아마도개발연대시대에필자와비슷한삶의 궤적을 그려온 건설인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소회를 떨칠수없을것이다. 그게인지상정아니겠는가.

사람은 그리움을 먹으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워지는 게 많아짐을 점점 실감나게 느끼곤 한다. 이제야 풀꽃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열리고, 아련한 추억들과옛가락의노래가그리워진다. 현장에서업무처리에정신이없던때는다소사치스럽고먼얘기처럼들렸던것이어느새살갑게느껴지는것은나이가들어간다는것을말해주는것이리라. 더욱이성글어지는머리칼이자꾸필자에게술한잔덜 하라고손짓하고필자는그아쉬움에흐느적거리곤한다.

세상과 단절되어 가는 나이에 이젠 당황하지 않고 잘 익숙하면 할수록 시간은 살같이 가고있다. 일에파묻혀정신없이 보냈던 젊은날보다더빠르게지나간다. 그래서예전에했던일들을되돌아보고, 수없이많았던인연들을떠올리며혼자어떻게세월을붙잡아보려하지만후드득쏟아지는저어두운창밖의빗소리에또생각의꼬리를 놓친다. 그래도살아온길을되돌아보는일이즐겁다. 생각속의나는젊고실패를두려워하지않을뿐만아니라항상주인공이다. 웃음과여유도잃지않는다. 과거와현재가융화된내가시간이흐르지않는또하나의세상에서살고있다.

언제부터인가 생활의 곳곳에서경보음이울리고그소리에놀라 겨우겨우실생활을알게되었다. 그리고삶의모든것을그리워하게 되었다. 나는그그리움으로숫한 벽을허물고아침마다 뜨는해에 모든것을기대며또하루를시작한다. 지금이세상엔내가사랑하는, 또 나를 그리워하는 아름답고 살가운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이있기에….